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별 2길 6번지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음 10월 21일) 제194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내년도 정부예산 5691억원

전주시, 전년보다 8.3% 증액

독립영화의 집 건립
노후화 전주역사 개선
전라감영 보행환경 조성
탄소·농생명산업 등
각종 사업에 예산 반영

전주시가 최대 현안 사업인 '문화특별시 조성'을 비롯해 지역개발사업, 성장동력사업 등 '민생 관련' 정부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전주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으로 전년보다 5253억원보다 438억원(8.3%) 증액된 5691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시는 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와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기조 속에서 김광수·정운천·정동영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5691억원(132개 사업)을 확보한 가운데 신규사업으로는 ▲문화특별시 조성 ▲지역개발 및 도시재생 ▲미래먹거리인 탄소·농생명 산업 등 24개 사업에 19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막판까지 예산 확보가 불투명했던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과 전주역사 전면 개선사업, 전주교도소 이

전사업,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사업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서 향후 지역발전의 앞당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시는 고사동 영화의 거리 내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사업'을 위해 정부로부터 예산 5억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 전주를 독립영화의 성지 조성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총 400억이 투입될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난 18년간 마땅한 공간이 없어 야외 주차장이나 천막으로 만든 상영관에서 행사를 치러야만 했던 전주국제영화제를 전용공간에서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2억원,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19억5000만원, 전통한지 생산시설 구축 9억여원, 전주국제영화제 개최 예산 6억원 등을 확보해 전주만의 문화경쟁력을 키우고,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로서의 입지도 탄탄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전주의 관광임에도 건축된 지 36년이 지나 노후화된 전주역사를 전면개선(총사업비 290억원)하기 위한 예산 10억원을 확보했다.

이어 1972년 평화동 현 부지로 이전했지만 전주 남부권 발전을 가로막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5년 만에 행정절차에 돌입한 전주교도소 이전을 위한 국비 14억원을 확보, 내년 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또 전라감영 옛길 보행환경 조

성사업 추진을 위한 6억원의 신규 예산도 확보, 한옥마을 중심의 관광객 동선을 남부시장·풍남문, 재창조·복원 공사가 추진 중인 전라감영을 지나 구도심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통로도 갖게 됐다.

여기에 전주의 성장동력인 탄소산업과 농생명산업 등을 미래 먹거리로 키워나갈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한 것도 큰 성과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9월 최종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탄소산단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예산 일부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예산(총사업비 37억원) 2억원, 농생명 SW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의 농생명산업 관련 국비를 확보해 연기금과 농생명산업, ICT산업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도 다지게 됐다.

이밖에 국립 보훈요양원 건립 20억원, 전북지역 장애인 능력개발 인프라 구축 36억5000만원 등 대규모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신규 예산도 확보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이번 국가예산 확보 성과는 전주시, 정치권, 전북도간 협치의 산물"이라며 "경계의 3대 축인 문화관광경제, 첨단기업경제, 금융산업경제의 기반을 마련했고 글로벌 전주의 위상을 널리 알리면서 도시재생, 장애인일자리를 창출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방안 논의 전북을 아시아 농생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 조성' 관련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청 부지사, 실국장 및 관련 전문가들이 7일 도청접견실에서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가졌다.

“김승환 교육감 공약달성률 32%에 그쳐”

도교육청 내년 예산 심사

허남주 도의원 “전체공약 41개 중 25개는 미완료 사업 예산투입 편향적” 지적

“교직원 수련원 건립은 아직도 중앙심사 통과 못해”



또 이와는 반대로 “교육혁신과의 ‘기초튼튼, 즐거운 배움, 학력의 상향 평준화 실현’과 ‘특수교육지원 확대 및 장애인식개선 사업, 방과 후

마을학교 운영’ 등은 총사업비보다 80억원 이상이 초과되는 등, 공약사업 예산 투입이 편향적으로 들쭉날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민선3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완료 된 25개 교육감 공약사업의 향후 투입예산 550억3천 900만원이 민선4기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승환교육감의 민선3기 공약사업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 참된 학력신장, 교육정의 실현, 교육복지 확대, 농어촌 및 원도심 학교 활성화로 5대 실천분야 41개 사업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민선3기 선거공약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허남주(자유한국당 비례대표·사진)의원은 전북도 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체공약 41개 사업 중 총무과의 ‘교직원 수련원 건립’은 아직까지 중앙심사도 통과하지 못했고, 인성건강과 ‘학부모부담교육비지원’은 15% 정도만 투자되어 임기 내 사업추진이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매일 INDEX
2면 - 새마을 챔버리 별도민지원위 창립 4면 - 전주 시내버스 노조 부분파업 돌입 5면 - 빗물 재이용, 전국 우수사례로

서남대 임시 이사회 긴급회의 무산 | “8일부터 성명서 발표할 것”

폐쇄 위기에 처한 서남대학교(남원 소재)를 살리기위해 임시 이사들의 긴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7일 서남대 구성원 등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전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6명의 서남대 임시 이사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다.

이번 긴급 회의는 새로운 재정이여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는 부산 온종합병원의 정상화계획서를 확인한 뒤, 정식으로 교육부에 접수하는 것 등을 논의하기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남대 구성원이 교육부에 정

상화계획서를 접수했지만 임시 이사회를 통한 접수가 아닌 만큼 정식 접수가 아닌 가접수(임시 접수)된 상태다.

그러나 6명의 임시 이사 중 4명만 참석, 2명이 참석을 하지 않아 회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긴급 회의를 소집할 경우 전원 참석이 원칙인만큼 불참자가 생겨 무산된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최종 대학 폐쇄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서남대 구성원들은 다시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부 임시 이사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회의 참석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교수협의회 김철승 회장은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 이사들이 이처럼 불참을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며 “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정상화계획서도 정식으로 접수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일(8일)부터 청와대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한다”며 “학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원=유영철 기자

www.muju.go.kr

무주에서 참 고운 하늘 빛 찾았습니다!

맛 좋은 먹거리 반짝이는 반딧불 건강한 하루

웃음 짓게 만드는 여유로움, 무주에서 누리는 일상이 오늘의 행복입니다.

오늘이 아름다운 곳 - muju 무주군 MUJU COUNTY